

시. 선. 집. 중.

인쇄에 대한 이해 높이고  
실무경험 쌓고

# 두마리 토끼 잡는 PIN아카데미

Publishing Information Network Academy

인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PIN아카데미가  
지난 7월4일 을지로6가에 위치한 PIN센터에서 '고급반' 오픈식을 갖고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강좌는 신구대학 인쇄정보미디어과와  
산학협력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인쇄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재교육하는 PIN아카데미에 대해 살펴본다.



7월4일 오픈한 PIN아카데미에서 이영환 제판조합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PIN아카데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는 학생들

### 실무교육에서 인쇄 비전 제시까지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영환) 부설 PIN아카데미(원장 정호균)는 인쇄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초급자 과정까지 신설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업계 및 단체에서는 인쇄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때 본격적인 실무교육을 자청하고 나선 PIN

아카데미는 업계의 희망처럼 보인다. 특히 교육을 통한 인쇄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반이지만 앞으로 개설될 강좌는 초급, 중급, 고급 외에도 경영자들을 위한 과정도 만들 예정이다. 이미 닷을 올린 PIN아카데미 호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업계에는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수입에 앞서 업계 공동발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출향한 PIN아카데미 호 선장과 선원들은 지금 맨주먹으로 거센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격이다. 의욕과 패기, 착실한 사전 준비로 출항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수입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강사들에게 넉넉한 강의료는 지불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사명감으로

미.니.인.터.뷰. | 이영환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디지털시대맞는 인쇄교육실현

“인쇄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없어 전문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한국화상정보제판공업협동조합에서 부설로 PIN아카데미를 개원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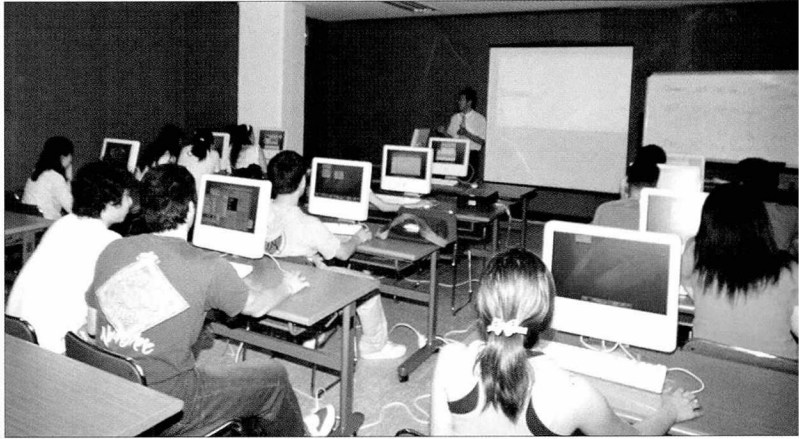
이영환 제판조합 이사장은 PIN아카데미 설립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PIN아카데미 설립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개원하기까지는 이 이사장의 노력이 없었으면 흐지부지 했을 것이다. 부족한 재정으로 어렵게 추진돼 온 이 PIN아카데미에 이 이사장은 재정지원 및 장비, 공간 지원을 함으로써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시작도 못해보고 끝났을 것이다. 배우들이 연습만 실컷 하고 무대에는 올라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PIN아카데미는 일단 무대에는 올려졌다. 이제 남은 것은 관객의 반응과 다음 무대를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제판조합에서 이러한 교육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이제는 인쇄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까지 디지



털 방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쇄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곧 프리프레스 분야가 더욱 더 중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판조합이 앞장 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PIN아카데미는 실무교육의 경우 중급과 고급으로 나눠 교육할 예정이며, 디자이너들을 위한 초급과정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경영자 과정도 신설해 최근 업계나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찬모임 형식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PIN아카데미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버티고 있다. 이번 고급반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쇄교육도 탄력을 받고 수입적인 면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교육 사업은 업계와 정부 등에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디지털화에 발맞춘 인쇄 실무 교육

PIN아카데미는 인쇄업계에 거세게 부는 디지털화 바람에 정면으로 맞서 대비한다

는 의미도 크다. 이번 고급반의 교육과정을 보면 디지털화 되고 있는 인쇄업계 환경에 맞춰 커리큘럼이 짜여 졌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 보인다.

1주차 교육은 Mac OS X 교육(Finder 기본 사용법)으로 System Preference, Printing, iphoto, Mail, Address Book 등을 배우고, 2주차에는 Mac OS X(10.4) 교육으로 Automator, 메일·FTP·Web 서버

구축, 보안기술, 원거리 작동 Remote Desk Top/VNC 등을 배운다.

3주차와 4주차에는 최근 해외에서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국산 편집 프로그램 M-Layout 기본교육과 특수교육(앨범, 수첩, 캘린더, PageServer 모듈교육)을 배우고, 5주차에는 Book Assembler 교육을 받게 된다. 6주차에는 21세기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네트워크 기

미. 니. 인. 터. 뷰. | 정호균 PIN아카데미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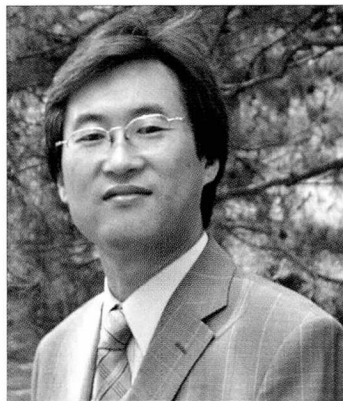
## 전문 인력 양성과 저변확대 최선

"PIN아카데미를 통해 인쇄인들은 물론 인쇄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에게도 인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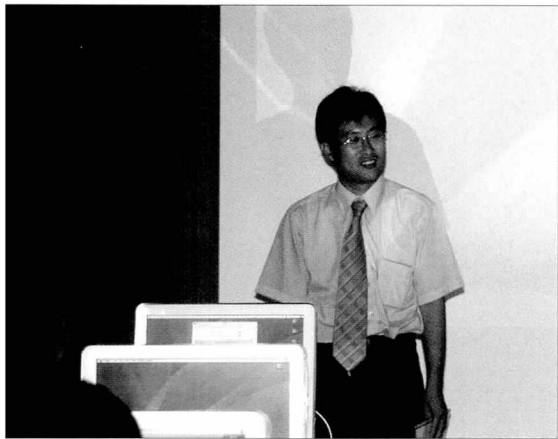
정호균 PIN아카데미 원장은 인쇄인들에게는 실무교육을 위주로 하고 디자인이나 출판 등 인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교육을 확대 인쇄에 대한 이해를 넓혀겠다는 계획이다.

정 원장은 학교교육도 말고 있지만 PIN아카데미의 실무교육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1990년대 중반 DTP가 확산되면서 한미음산업디자인학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잘 운영되던 학원이 타외에 의해 문을 닫게 돼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정 원장은 이제야 다시 인쇄 실무교육을 하게 돼 의욕이 넘치고 있다. "DTP 실무교육이 필요했던 시기에 학원을 운영함으로써 DTP 확산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은 PIN아카데미를 통해 인쇄업계 발전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

정 원장은 이제 막 시작한 PIN아카데미가 재정이 넉넉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원장직을 흔쾌히 맡았다. 그것은 이미 '디지털 그래픽아트'라는 책을 공동 집



필하면서 시작됐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 내놓은 이 책은 PIN아카데미에서 교재로도 사용된다. 정 원장은 인쇄와 디자인업계와의 가교역할도 하고 있다. 대학 강의 등을 통해 디자인 교육을 담당해 온 정 원장은 이번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다. "디자이너들이 인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지방에서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무 인쇄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적어 고민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팠다. 이번 아카데미 설립으로 디자이너들의 인쇄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정 원장은 학교 교육과 아카데미 교육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인쇄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저변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 LAN과 WAN, Ethernet 분석)과 라우터와 라우팅(라우터 설정방법, 라우팅 설정 및 이해, 라우터 실습), 네트워크 해킹 및 보안 대응, PIN 서비스 이해(MAN, VPN, Volp), 온라인 인쇄출판 장비의 기술적 이해(기본 네트워크 관리 Tip, 서버 설정 방법, IP 및 트래픽 관리) 등을 배운다.

7주차부터 9주차까지는 각종 인쇄 관련 편집 · 패키지 · 광고 디자인 등의 실전 기

초 실습을 하고 10주차와 11주차에는 이미지 스캔 및 화상처리와 출력(평판 및 드럼 스캐너의 구성과 활용범위,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와 활용범위), 디지털 인쇄의 범위와 활용성(단면 및 양면 인쇄, 소량 인쇄의 의미와 전망) 등을 배운다.

끝으로 12주차에는 제책, 인쇄품질에 대한 교육으로 자유 과제를 활용한 현장업체 제책실습, 제책의 종류 이해, 인쇄물 품질평가 요령, Test Form 현장 실습과 활용 분석 등을 배운다.

#### CIP3 활용과 서체 개발 교육도 포함

이번 PIN아카데미 고급반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CIP3를 활용해 직접 CTP 출력을 해서 인쇄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의 과정만 숙달되더라도 인쇄에 필요한 기술은 거의 획득하는 것이고 이 교육과정이 끝나면 경험에 의한 실전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인쇄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인 PIN아카데미 고급반에는 이 외에도 오픈 타입 서체를 자신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서체 제작이 일부 회사만의 전유물처럼 생각되고 이로 인해 접근을 꺼려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서체 제작 툴을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개성 있는 자신만의 서체를 개발할 수도 있게 되었다. 서체 개발에 대한 교육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어서 수강생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최근 CTP나 디지털 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 공급업체와 손잡고 인쇄 기초 교육과 더불어 장비 공급회사의 장비에 대한 위탁교육까지 계획하고 있어 인쇄업계는 물론 장비 공급업체들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PIN아카데미의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업계가 한 층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호 부장)



# 정확한 컬러 팬톤넷

디자이너라면 최상의 색상을 원합니다. 그래픽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들의 원하는 정확한 색상을 색상번호만으로 전달할 수 있는 팬톤 컬러시스템. 이제 팬톤전문 쇼핑몰 팬톤넷에서 팬톤 컬러의 세계를 느껴 보세요.



## pantonekorea.net

팬톤넷(pantonekorea.net) 주소 :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127번지 / Tel : 02)921-5001 / Fax : 02)926-0979